

# ‘돈의문박물관 마을’ 경희궁과 연결… 문화벨트 조성

경찰박물관 이전·체험 공간 조성  
‘근대 개항기 시민사체험관’ 건립  
주변 연계, 관람객 교차방문 유도

돈의문박물관 마을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마을 진입로에 있는 경찰박물관이 이전한 자리에 근대 개항기 시민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 들어선다. 경희궁과 맞닿은 지역은 공원으로 꾸며 ‘돈의문박물관 마을-경희궁-서울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를 만든다.

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돈의문박물관마을 2단계 발전방안 추진계획’을 내놨다.

우선 시는 2020년 말 돈의문박물관마을 진입로에 있는 경찰박물관이 이전함에 따라 기존 13층짜리 건물을 4층으로 개축해 ‘근대 개항기 시민사체험관’(가칭)을 조성하기로 했다. 근대 역사를



다룬 돈의문박물관 마을과 기본 콘셉트를 맞추고 건물 높이를 낮춰 스카이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민 체험관은 개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근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당시 마을 일대 생활 모습을 구현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덕수궁 중명전, 구려시아공사관 등 개항기 역사·문화를 담은 전시관과 체험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에게 생동감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돈의문박물관 마을.

시는 “풍부한 자료조사와 고증을 통해 근대 시민의 삶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2월까지 공간구성 및 신규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을 진행한다. 이후 2021년 건물 현상공모와 기본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마을에 인접한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객의 교차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조선시대(경희궁)에서 근대(돈의문박물관 마을)로 넘어오는 시간여행 개념의 연결통로나 조형물을 설치해 보행 동선을 연결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은 학술용역, 현상공모, 설계과정 등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7년 돈의문 터가 남아 있는 정동사거리 인근의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해 9770m<sup>2</sup> 규모의 ‘돈의문 박물관 마을’을 개관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 유령마을로 불리다가 올해 4월 ‘살아있는 박물관 마을’이라는 정체성을 실려 일년 내내 전시와 행사, 체험이 펼쳐지는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새 단장해 문을 열었다. 지난 5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방문객 수는 15만4000명으로 하루 평균 약 1973명이 다녀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동네발전전략’ 본격… 3100억 투입

미아·면목·응암·오류·독산 등 5곳 중심 지역 육성 및 생활 SOC 확충

서울시가 동(洞) 단위 ‘동네발전전략’으로 지역맞춤형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미아, 면목, 응암, 오류·수궁, 독산 등 5개 지역생활권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을 1일 발표했다. 5대 권역 별로 보면 미아·면목은 동북권, 응암은 서북권, 오류·수궁과 독산은 서남권에 해당한다. 앞으로 5개 지역생활권별로 중심지 육성과 생활SOC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상업지역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의 거점이 될 6개 중심지를 육성하고, 도서관, 주차장, 공원 같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짓는다. 관내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도 진행한다. 총 사업비로 3100억원(시비 2300억원, 구비 600억원, 국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미아지역생활권(수유1동·삼양동·미아동)은 북한산 등 풍부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역세권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으로 총 13개의 사업이 추진된다.

2개의 중심지(삼양사거리역, 수유역 일대)와 1개의 역세권(우이신설선 화계역)을 중심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과



우리동네키움센터를 2022년까지 조성한다. 빨래골 입구 자재창고를 이전하고 생태공원으로 만든다.

면목 지역생활권(면목본동·면목2~5·7·8동·망우3동)에서는 6개 사업을 실시한다. 동북권과 경기 동부를 잇는 거점이자 면목선 개통 등으로 주변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7호선 사가정역 일대(면목지구 중심)를 중심지로 육성한다. 면목유수지에는 주차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을 짓고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공공도서관(3996m<sup>2</sup>)과 주차장을 만든다.

응암권(응암1~3동, 녹번동)에서는 6호선 응암역 일대를 상업·교육·문화 특화 중심지로 키운다. 응암2동 주민센터 이전·확장과 연계해 구립 공공도서관을 세운다. 서울혁신파크 내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5658m<sup>2</sup>)을 만들고 불

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도 검토한다.

오류·수궁 생활권(오류1·2동, 수궁동)에서는 온수역세권을 서울 강남·북~인천~부천을 잇는 서남권 관문 도시로 육성한다. 서울 렉비구장, 동부제강부지 등 일대를 산업·문화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고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오리로(궁동삼거리~우신빌라)와 연동로(푸른수목원~성공회대 입구 교차로) 확장을 추진한다.

독산권(독산1~4동)은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독산역과 시흥대로 일대를 G밸리와 배후주거지 지원 거점으로 키운다.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상업시설과 청년주택 등을 확충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해 체육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한다. 시흥대로 동쪽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범안로(독산역~독산로)를 확장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부(경기)=김승열기자kimsy@

## 서울연구원, 포럼서 남북협력 방안 모색

베를린자유대학 이은정 교수 발제  
서울·북한 방송 개방, 학술교류 제안

서울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기획포럼: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 모색’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베를린자유대학 이은정 교수가 ‘동서 베를린 경험으로 본 지방정부의 남북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 교수는 동서독 교류와 협력의 발전 과정을 개괄하면서 시기별 특징을 살핀 다음 독일의 특수성에도 보편적인 시사점이 있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서울의 방송에 북한 방송을 개방하기, 서울과 평양에 있는 대학들의 학술교류 지원 등을 서울시에 제안한다.

이어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좌장으로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의 가능성과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종수 통일부장관정책보좌관, 사문걸프리드리히 애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서보현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 이태호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하승창 전 대통령 비서실 사회혁신수석이 참여한다.

이번 기획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초가을 날씨를 보인 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 청소년 버스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교통카드와 연동, 일부 금액 환급

경기도는 만 13~23세 도민이 사용한 실제 교통비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청

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해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환급해줄 예정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경기도와 시·군이 50%씩 투입, 1인당 연간 만 13~18세는 8만원, 만 19~24세는 16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 할인제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오전 6시 30분 이전 버스 탑승 시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를 경기도 내 시내버스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면제도 제도화하도록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과 협의해 운송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정부(경기)=김승열기자kimsy@

## 서울시, ‘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구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강서, 노원, 강남 등 8개구 34개단지, 3528호이다. 전용면적 21~49m<sup>2</sup>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보증금은 151만~422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3만5900원~8만4100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9월 23~27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예비 입주자는 12월 27일 발표한다.

/김현정 기자